

32

하나님을 의지한 히스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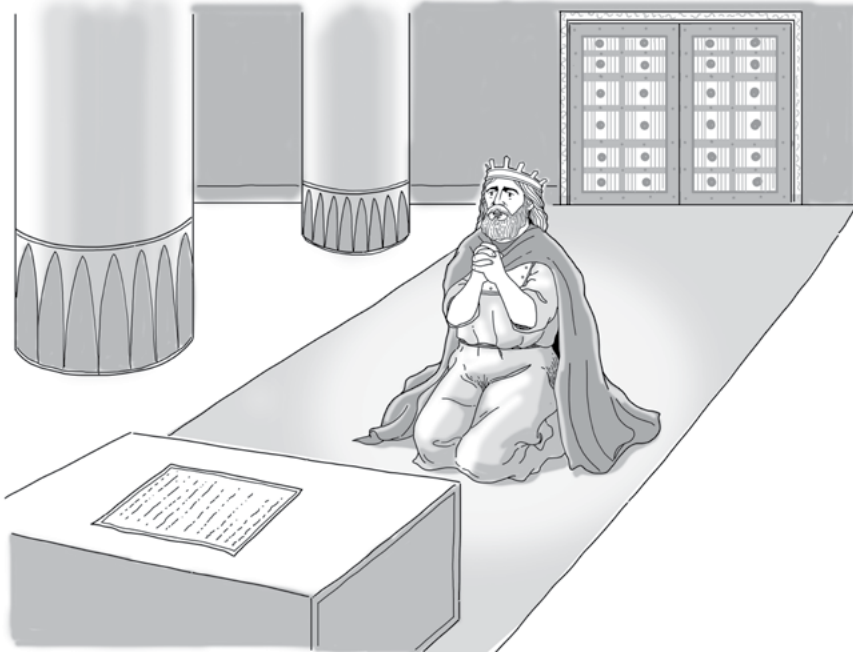
왕하 18:1~8, 19:14~19, 35~37

찬송가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 57장 (시편 131편)

오늘 배울



1.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압니다.
2. 평소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였기에 위기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음을 압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 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왕하 18:3~6)

너의 길을 께 말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 37:5~6)



을 이해하기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유다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폐하고 바알을 숭배하였으며 심지어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녀를 불살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는 등 극악한 죄를 짓던 왕이었습니다. 이런 아하스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는 통치 원년에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산당을 폐하고 우상의 단을 헐었으며 성전을 수리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였기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도중 히스기야가 그동안 섬기던 대적 앗수르를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앗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히스기야는 앗수르 왕에게 굴복하여 성전과 왕궁 공간에서 금과 은을 내어주고 이후 앗수르 왕에게 공물을 바치기로 약속하여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 이후 히스기야는 당시 강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하여 앗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나기를 꾀하였습니다. 이에 앗수르는 다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히스기야와 백성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해볼 수 없는 상황임을 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사자를 보내어 앗수르의 십팔만 오천명의 대군을 하룻밤 사이에 진멸함으로 유다를 구원하셨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유다는 구원을 얻었고 히스기야는 열국 앞에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시 9:10)

“And those who know Your name will put their trust in You; For You, LORD, have not forsaken those who seek You.” (Ps 9:10)

-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2 누군가를 알고 의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과 능력을 잘 안다는 의미입니다.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아는 것인지 시편 9장 10절 말씀을 반복하여 읽어보고 설명해 봅시다.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1 다음 빈칸을 채워 봅시다.

성경구절	질문	답
왕하 18:4	히스기야가 없었던 우상숭배 장소는 어디입니까?	
민 21:8~9	우상들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시켰습니다. 이때 파괴시킨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2

1번의 상황처럼 히스기야가 이러한 개혁조치를 취할 때 국내외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못된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고쳤습니다. 이처럼 나에게도 히스기야처럼 과감히 버리고 고칠 것이 없는지 적어봅시다(시 55:22, 뱀전 4:3).

- 내가 과감히 버리고 고쳐야 할 것 :

- 이유 :

3

복이스라엘을 정복한 앗수르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앗수르왕에게 굴복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고 다음 질문에 답해봅시다.

① 앗수르왕이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② 그것을 취한 후 앗수르왕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4

히스기야는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잘못된 때도 있었지만, 그 즉시 회개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뢰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응답해 주셨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적어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봅시다(시 105:3~4).

- 나의 어려움 :

- 나의 기도 :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왕하 18:4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의

왕하 19:4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화

왕하 20:10~11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

대하 29:2~3

가무

시 55:22

미

빌 4:6~7

특

벧전 4:3



두 팔을 넓게 펴신 주님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돌을 캐내는 채석장에서 인부들이 다이너마이트 폭파 준비를 다 마치고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모든 인부들이 다 대피하고 폭발하여 터질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데 한 큰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몇 초만 지나면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게 되어 있는데 현장 앞에서 세 살짜리 꼬마 아이가 어슬렁거리면서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큰일이다. 이제 불과 몇 초 후에는 터질 것인데 정말 큰일이다." 인부들이 어찌할 줄 모르며 아이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며 손짓 했으나 아이는 그 모습을 더 즐거워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 때 그 아이의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아이 엄마는 본능적으로 아이에게 달려가려고 하다(달려갔으면 아이와 엄마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향하여 두 팔을 넓게 펴고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달려왔습니다. 품에 안기는 아이를 잡자마자 엄마는 대피소로 들어갔고, 순간 다이너마이트는 굉음과 함께 폭발했습니다. 아이와 엄마는 무사히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주님은 지금도 당신을 향하여 환한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두 팔을 넓게 펴신 주님의 품을 향해 달려나가세요. 평강과 위로와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6~7)



질문 있어요~



히스기야를 흔히 ‘기도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히스기야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교회에서 흔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새벽기도나 철야기도를 하는 모습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우선 그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면 철야, 금식, 새벽기도와 같은 기도의 형식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바리새인들은 금식 기도에 으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것 자체는 매우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막 1:35). 그러나 ‘새벽기도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율법처럼 강요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철야기도이든 금식기도이든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저 조용히 기도하면 됩니다.

확실한 기도의 목표가 없는 새벽기도나 금식, 철야기도처럼 형식에 치중된 기도는 자신의 의만 내세우는 악습일 뿐입니다. 조금 일찍 일어나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중에 양심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고 비로소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